

노년기 학습참여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련성 탐색*

이 해 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국문초록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과 함께 사회적 배제, 자기방임, 우울, 고독사 등의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떤 요인들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한 요소로 노년기의 학습참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기여하게 되는지 그 관련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학습에 참여한 60세~70세 사이의 신노년층 2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교육 참여자들은 학습참여후 무엇보다 ‘배움을 통한 즐거움’을 갖게 되었으며,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고 ‘타인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면서 ‘삶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학습의 결과가 단순한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면서 봉사활동, 역량향상교육에의 참여, 취업 등의 다양한 사회참여로 확장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 활동과 참여를 통해 자기만족감, 성취감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됨으로써 우울이나 소외감에서

* 이 논문은 2020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haejoole@knou.ac.kr

벗어나게 되었으며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을 갖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 학습참여는 신체적, 인지적 활동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되고 성찰을 통한 사고의 전환, 나아가 사회참여로 이어지면서 삶의 질 향상,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기 학습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노년기 학습을 촉진시키고 그것을 통해 성공적 노화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 주제어 ■ 노년기 학습참여, 사회참여, 성공적 노화

1 서 론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면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인생의 1/3에 해당되는 노년기를 아무런 준비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55년생~63년생)들이 노인으로 편입되게 되는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인구의 15.7%, 2025년에는 20.3%를 차지하게 되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2050년에는 총인구의 약 4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9). 그러나 이들 중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된 가구는 10.6%에 불과하며

32.6%는 생활보장수급이나 기초 연금 등 공적 수혜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 빈곤 외에도 노년기에는 질병이나 무위, 고독감 등과 같은 어려움(4苦)을 겪게 되고 사회적 지지망이 약화되면서 자살률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은 늘어난 노년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적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관련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추세는 긍정적 노년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활동적, 생산적 노년기를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2002년 유엔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PA)’를 발표하였으며 EU 국가들도 고령화정책을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적 노령화(active aging)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고령화에 대한 문제해결책으로 정부차원의 고용, 건강, 소득, 여가 및 대인관계 관련 정책과 제도를 다양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 정책은 국가가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시혜적, 공급자적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이는 기본적으로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차원의 편견과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인들 스스로 노년기를 준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성공적 노화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로외와 칸은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늙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성공적 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첫째로는 낮은 질병 및 질병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며 둘째는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의 유지, 셋째는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owe & Kahn, 1998). 한편 Hughes (1990)는 성공적 노화를 ‘삶의 질’과 관련지어 설명하면서 ‘질 높은 삶’이란 개인적 자율성, 육체 및 정신적 안녕, 삶의 만족도, 사회, 경제적 상태, 문화적 요소, 사회적 관계, 활동능력,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요소로 학습참여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예컨대 서명환의 연구(2011)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성정의의 조사(2013)에서도 노년기의 학습참여가 정신적, 심리적 만족과 육체적 건강유지에 도움이 됨으로써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허준수·조승호의 연구(2017)에서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가구의 소득, 건강상태, 기능적 능력, 인지기능 및 우울감 등이 제시되었으나 교육수준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단지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매개효과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학습참여는 왜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

리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성공적 노화와 관련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학습이 기존의 학교교육과는 달리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성공적 노화와는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성공적 노화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이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왜 노인들은 학습에 참여하는지, 기존의 학교교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여후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통해 노년기 학습참여가 갖는 의미와 기능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셋째로는 노년기 학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회참여로 이어지고 나아가 성공적 노화로 연결되는지 그 관련성을 찾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노년기 학습참여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분석해 보고 성공적 노화를 위해 향후 노인교육의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의미와 요소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란 흔히 노화의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과 노력에 의해 일정한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늙어가는 상태를 뜻한다. 이는 단지 병이 없는 상태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와 품위를 지

키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누리며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서명환, 2011). Felce & Perry(1995)는 성공적 노화를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은 생활환경의 객관적 수준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체험하는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등 다차원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성공적 노화란 한 마디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관적 행복감을 포함하는 다차원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학문적 논의는 사실상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서 출발되었다. 활동이론은 탈참여이론(Disengagement Theory)과 상반되는 이론으로 1961년 Havighurst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1986년 세계노년학회에서 시작되었다. 활동이론에 의하면, 노인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이나 적응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의 활동으로부터 단절 내지 분리되기보다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Neugarten(1961)도 유사한 입장에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노인들이 얼마나 특정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가와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활동적 노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립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적극적 노화(active aging)를 지지하는 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와도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정, 2013).

여기에서 ‘생산적’이라는 의미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활기차다’,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생산적 노화의 개념은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경제적인 이익이나 기여를 하는 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 더 나아가 개인의 삶에 기여하는 활동까지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성공적 노화는 과거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온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긍정적 노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성공적 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도 있다. 즉, 성공적 노화란 개념이 미국사회에서 가치롭게 여기는 경제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으로 ‘성공’을 생산성,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지어 ‘노동중심적 윤리관(work ethics)’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정경희외, 2006).

한편 탈참여이론은 활동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으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활동 이외에도 개인적 성격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활동이론이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불평등

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으며 일부 노인들의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새로운 도전이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며 조용히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년을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최근에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의미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관점에서 물리, 환경,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삶의 종합적인 상태, 즉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인 안녕이나 행복감, 삶의 만족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Lane, 1994; 김동배, 2008)으로 확장, 해석되고 있다.

Fisher의 연구(1995)에서는 삶의 만족도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의 충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노년기의 심리적 적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제이며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중요한 요건임을 강조한다. 또한 Jung이나 Ericson의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 및 건강상태, 인지기능과 우울감을 나타내는 심리적 정서 상태, 사회참여 등도 노년기의 삶의 만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은 노인들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노인들의 역할상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교활동, 학습활동, 여가활동 및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은희 외, 2014; 권현수, 2009). 전지윤의 연구

(2003)에서도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은 노인들을 소극적, 의존적, 비생산적 존재에서 적극적, 독립적, 생산적 존재로서 수혜자에서 제공자로 변화시키고 평생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지식, 기술 및 지혜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관심이 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김동배(2008)는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요소로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 ‘적극적 인생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 수용’ 등의 6개 하위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성혜영과 조희선(2005)은 로외와 칸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성공적 노화모델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특징(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우울)과 생산적 활동(유급노동, 자원봉사, 단체활동, 학습활동, 가사노동, 손자녀 돌보기)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공적 노화에 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년기 학습참여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노인교육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에 대한 교육으로 노인이 주체가 되어 노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길러줄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박성희, 2018). 또한 노인교육은 동년배들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새로운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노년기 학습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학습의 과정속에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찰과정을 통해 스스로 삶의 가치와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며 하나의 사회자원으로 거듭나기도 하며 다음 세대에 게 중요한 역할모델로 용기와 위안을 심어줄 수 있는 경험자로 거듭나기도 한다(한정란, 서명환, 2011). 이러한 점에서 노인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대처하는 방식과 자신의 남은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이끌어가는 역량을 키워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노인교육연구회, 2004).

맥클라우스키(McClusky, 1971)가 ‘노인문제에 관한 백악관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들은 변화에 잘 대처하고자 하는 대처 욕구(coping needs),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경험을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적 욕구(expressive needs), 무엇인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 욕구(contributive needs), 후세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욕구(influence needs),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파악하려는 초월적 욕구(transcendence needs) 등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욕구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노인들의 개인적 성장과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실제로 노년기의 학습참여는 배움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가로서 혹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 줌으로써 즐거운 노년, 질 높은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이를테면 서명환(2011)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향후 삶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복기 외(2006)의 연구에서도 노년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습참여집단의 생활만족도 향상, 우울감 감소, 노인태도 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식·기영화(2010)의 노인학습동아리 참여노인의 학습경험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학습참여를 통해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학습동아리를 통해 ‘지식의 공유’와 ‘인간관계형성’이 이루어짐을 지적하면서 노인들은 학습동아리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성찰하게 되고 성공적 인생에 대한 활력을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노인들에게 학습동아리 활동은 기존의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 서로 배우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계형성이라는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공동체적 사고도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노인들의 학습참여가 노년기의 성공적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선화와 석말숙(2015)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특히 자아탄력성이 그 안에 매개됨을 제시했다. 또한 정병은·이기홍(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중 어떤 활동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연령별, 생애주기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욕구와 동기에 따라 적절한 사회활동의 유형 및 중요성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즉, 젊은 노인의 경우에는 생산적 활동을 선호하나 후기노인의 경우에는 관계적 동기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교육의 내용이 연령이나 생애주기에 따라 달리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의 요구나 동기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들의 학습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또는 사회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각기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기의 학습이 과거의 학교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소들이 노년기의 성장과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지? 그리고 노년기의 학습참여가 어떻게 사회참여로 확장되면서 성공적 노화와 관련성을 갖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1) 연구방법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노인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노년기의 성공적 삶과 연결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어서 양적 연구보다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인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학습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학습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반구조식 질문을 통해 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을 기록,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면담내용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가운데 의미 있는 개념들을 추출하고, 분류하였으며 그 중 반복되는 중심언어를 발견해 내고 의미상 관련 있는 것끼리 범주화하면서 상위범위로 묶어가는 식의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중심적인 언어를 바탕으로 의미를 찾아내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 분석을 하였으며 그 핵심적인 의미들을 종합 기술하였다. 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면담내용

연구주제	주요 면담 내용
노년기 학습참여의 종류 및 참여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성, 연령, 교육 정도, 건강상태 등) • 학습참여의 종류 (취미여가, 인문교양, 시민 교육, 직업 교육등) • 학습참여 동기 및 노인교육에 대한 인식
학습참여의 의미 학습참여와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참여의 의미, 삶의 변화 등 • 학창시절의 학습과 노년기 학습의 차이 • 학습참여후 사회참여 여부 및 참여과정
학습참여와 성공적 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참여후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 성공적 삶,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의견

2) 연구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주로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60~70세 사이의 학습에 참여하고 계신 신노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중고령 노인들의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욕구나 참여가 저조한 편이어서 주로 신노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의 학력수준은 중졸 6명, 고졸 7명, 대졸 이상 10명으로 가장 많다. 성별은 남녀 비슷한 비율로 배분하려 하였으나 실제 학습 참여자가 여성이 많아 면담에 응한 대상도 여성이 17명, 남성이 6명이었다.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어서 학습과 사회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이다. 심층적 면담을 위해서는 가급적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 연구자나 연구조원들과 함께 수업을 했던 서울시 50플러스 학습자 7명, 금천구 독산동 주민협의회 학습자 10명, 방송대 학습자 6인 총 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교육 참여 프로그램
1	여	65	대졸	중	방과후아동지도, 구연동화
2	여	67	고졸	중	마을해설사, 도시재생사업 교육(꽃가꾸기), 마을정원사
3	여	63	중졸	중	도시재생사업 교육(돌봄교실 등)
4	여	62	고졸	하	마을해설사, 도시재생사업교육
5	여	61	대학원	중	방과후강사양성과정(전래, 창의 미술 등), 50플러스 생애설계전문가 과정
6	여	62	중졸	중	도시재생사업 교육, 주민협의회

번호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교육 참여 프로그램
7	여	69	대졸	중	도시재생사업 교육, 주민협의체
8	여	65	중졸	중	도시재생사업 교육(에너지, 정원 등)
9	여	73	고졸	하	도시재생사업 교육, 주민협의체
10	여	72	중졸	중	도시재생사업 교육, 주민협의체
11	여	75	중졸	중	도시재생사업 교육, 주민협의체
12	여	61	대졸	상	직업 관련, 학위과정
13	여	60	중졸	중	웃음치료, 전래놀이지도 과정
14	여	65	대졸	상	전래놀이지도 과정
15	여	62	고졸	중	사회복지, 전래놀이지도
16	여	66	대졸	상	전래놀이지도
17	여	60	대졸	상	사회복지, 교육학
18	남	64	고졸	중	자신의 직업중심이나 주민협의체 참여
19	남	72	고졸	상	도시재생사업 교육, 주민협의체
20	남	68	고졸	상	주민협의체
21	남	60	대졸	중	취미여가교육(사진)
22	남	67	대학원	중	레크레이션 과정, 전래놀이지도 과정
23	남	68	대학원	상	방송대 졸업생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인 학습 및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21년 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면담 진행자를 섭외하고 그들과 연구목적 및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자와 함께 박사급의 연구원 2명이 함께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했던 연구원들과 함께 의논하

면서 모호한 표현이나 의미는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워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로 면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필요한 경우 2차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4 노년기 학습참여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련성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습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 어떤 동기에서 학습참여를 하며 학습에 참여한 후 그 의미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로 확장되고 삶의 만족, 성공적 노화와 어떤 관련성을 갖게 되는지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분석해 보았다.

1) 노년기 학습참여의 동기와 노인교육에 대한 인식

(1) 노년기 학습참여의 동기

우선 인터뷰에 참여한 노년기 학습자들에게 학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물었다. 그 중 가장 많은 답변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어서’이었으며, 그 다음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서’, ‘그냥 배우고 싶어서’, ‘무료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냥 할 일도 없고, 따분해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나름대로의 동기를 갖고 학습에 참여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노년기의 학습동기는 호울(Houle, 1961)이 유형화했던 목표지향동기, 활동지향동

기, 학습지향동기와 유사하였으나 여기에 새로운 동기로 관계 지향동기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향후 노인들의 외로움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년기의 학습이 좀 더 촉진되어야 함을 시사 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글을 써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살기 바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 노인이 되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행복해요~” (참여자 1)

“나는 늙었다고 그냥 놀고 있는 게 싫어요. 뭐든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취업하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지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13)

“난 배우는게 좋아요. 그동안은 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못배웠지요. 그래서 정년후에는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걸 배워요. 중국어를 배우면서 난 중국 여행을 갈 때 써먹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니 신나죠~ ”
(참여자 23)

“처음에는 그냥 심심하고 무료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는데 뭔가 배우니까 재미있고 사람들과 함께 하니깐 더 좋더라고요. 이제는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땀에 어디까지 못해도 친한 이들끼리 서로 불러 국수도 끓여먹고~ 이제는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참여자 6)

(2) 노인교육과 학교교육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

노년학습자들은 노년기의 교육이 유년시절의 학교교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인식했다. 그들은 대부분 학창시절의 공부에 대해 부정적 느낌을 갖고 있었다. 즉, 공부는 어렵고 재미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강제적인 학습 이어서였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어린 시절에는 교육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학교에 가야한다고 해서 다녔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는데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오라고 해서 참여했는데 하다가 보니 친구도 생기고 재미도 생겼다고 한다.

“학교다닐때는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랬는지 공부하는게 싫었어요. 그래서 재미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밌고 즐거워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가봐요~” (참여자 2)

노년기의 학습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고 삶에서 필요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한다. 또한 노년기의 공부는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관련되어 무언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 되니 고맙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인지 지난간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면서 나머지 삶을 잘 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다고 한다. 학습을 통한 성찰의 기회는 에릭슨

(Ericson)이 제시한 바, 인생의 8단계인 노년기를 절망이 아닌 자아통합기로 완성시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시절에는 매일 숙제하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공부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요. 지나간 삶에 대한 반성도 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마음을 내려놓아서 그런지 여유도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운 것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5)

2) 노년기 학습참여의 의미와 사회참여로의 이행과정

(1) 삶의 변화를 통한 개인적 성장

노년기 학습참여자들은 학습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한다. 일단 그들에게 배움은 ‘즐거움과 활력’을 주었으며 자신이 원하던 것을 배우게 됨으로써 ‘자기 만족감과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번지면서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졌다.

“저는 사는게 지루했는데 학습을 하다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학습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기분이랄까요~ 무료함이 없어지고 힘이 나요. 웬지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업되구요. 그래서인지 하루하루가 즐겁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10)

“지역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잘 해보고 싶은 용기도 생기더라구

요. 우리 동네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내가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참여자 7)

“누가 뭐래도 배우니 내가 좋아. 배움은 자기만족인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서히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구. 남을 이해하게 되면서 남에게 말도 함부러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교육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배워가는 거 같아.” (참여자 16)

“학습에 참여하면서 내 자신이 밝아졌다. 내성적인 내가 좀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다. 손을 들어 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옛날에는 누가 나를 시킬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하겠다고 자청하게 되었다. 나도 참 많이 변한 것 같다.” (참여자 14)

노인학습자들은 학습을 통해 육체적 활력과 정서적인 차원의 만족감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해 자신과 마음의 여유를 가져왔고 성격적인 변화도 가져오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조그만 변화들이 쌓여 점차 자신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반성과 성찰이다. 노인들은 학습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성찰을 통해 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나머지 생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갔다.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의 변화

노년기 학습참여는 자신만의 성장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갖게 했으며 배운 것을 누군가를 위해 써 보고 싶다는 실천욕구를 갖게 함으로써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확산되었다. 물론 그 중에는 본인의 애초 목표에 따라 자격증취득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그냥 생각없이 교육에 참여하다가 점차 생각이 ‘나에서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게 되었고 ‘배운 것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용기와 행동력’이 생기게 되었고 점차 ‘사회에 대한 관여와 참여’로 이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원활동이나 시민사회활동을 하였는데 때로는 그것이 ‘새 일이나 직업’으로 연결되는 사람도 있었다. 새로운 일에 참여하면서 노인학습자들은 과거에 비해 적극적 성격을 갖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다고 한다.

“학습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지역사회에 나가 일을 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공부를 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만 걱정했는데~ 이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면 살기 좋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배운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힘 같아요” (참여자 19)

“난 원래 사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일을 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도

생기게 되었고 뭔가 나라일에도 관심이 늘어났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변했어. 하하” (참가자 7)

“처음에 이 나이에 뭘 배워~ 뒤에 쓰려구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이과정을 배우고 나니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모임에서 써보니 참 좋더라. 또 친구들이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하니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요양원에 가서 놀이봉사도 하고 레크레이션 지도사가 되려는 꿈도 생겼다”

(참가자 22)

“나는 복지관에서 어르신 그림일기 지도를 했는데 그것이 연결되어 지금은 학교 방과후 지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배운 것을 누군가를 위해 쓴다는 것만도 좋았는데 이제 일감도 생겨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다” (참가자 17)

이러한 면접결과는 노인들의 학습결과가 자기욕구충족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교육학적 관심이 주로 개별적인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평생교육을 통한 노인들의 학습참여는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 차원의 학습을 넘어 상호협동적인 학습과 사회참여로 확장된다는 선행연구(윤창국, 2002)와 비슷한 결과라 하겠다.

3) 학습참여와 성공적 삶의 관련성

위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노년기의 학습참여가 어떻게 성공적 삶으로 이끄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1) 학습참여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활력증가와 정서적 만족도 증진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체적, 인지적 차원의 건강과 함께 정서적 차원의 ‘자기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면담결과, 학습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우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체적 활력’을 되찾았으며 배움이 이루어지면서 ‘학습에 대한 욕구충족’이 이루어졌다.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학습과정에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년기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단 일정한 시간에 갈 곳이 있다는게 좋아요. 몸을 움직이게 되고 재미있게 웃고 배우는 과정에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우울증도 없어졌고 매일 공부를 해서인지 치매에 안걸릴 것 같아요.” (참가자 17)

“전 공부를 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성격도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의 공모사업에도 도전했어요. 원래의 제 성격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동아리 사람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도전해 보니 되더라고요.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참여자 12)

“옛날에는 늙어지면 그냥 손주들이나 보면서 여생을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늙어가다 죽어야 할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모든게 다 감사해요”.

(참가자 5)

(2) 개인적 만족에서 사회적 관심과 참여로 관계망 확장

노년기 학습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면서 ‘자기효능감’이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면접결과에 의하면 노년기의 학습은 개인적 만족이나 성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의 마음, 사회참여로 이어졌다. 그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끈끈한 정과 사회적 관계망’이 생기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도 생겨났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인들의 욕구중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다던가, 관계에 대한 욕구, 후세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욕구 등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성공적 노화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저는 학습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운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삶보다는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삶, 배운 것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참여자 4)

“저는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나니 이제는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살고 싶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누구인가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참가자 9)

“전 이 동네를 위해 무엇인가 해 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낙후된 우리 지역을 뭔가 새롭게 바꾸어보고 싶어서 주민협의체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공부도 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과 토론도 하면서 마을 일을 해 나가니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을 일을 함께 의논하다 보니 동네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도 생기네요~ 옛날에는 우리동네라는 생각을 별로 해 본적이 없었는데 신기하네요. 우리가 마을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졌어요.”

(참가자 10)

“학습을 하기 전에는 늘 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도 생겼고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외롭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면서 친구가 생겨 좋아요.”

(참여자 8)

(3) 노년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긍정적 변화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노년기의 삶이나 노년에 대한 태도상의 긍정적 변화이다. 노인 학습자들은 과거에는 늙는 것이 무섭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늙음을 한탄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년기를 준비하고 대비’하려

는 마음가짐과 개인을 넘어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노인학습자들은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되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했다. 그들은 학습을 통해 ‘내가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 혹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있게 살까?’에 대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란 부정적인 늙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며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실상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마크 아그로닌(Marc E. Agronin, 2018)이 지적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설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늙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창조적인 나이들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공동체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웃을 돌아보면서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겠죠. 사실 젊었을 때는 경제활동과 가족돌봄으로 제한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서로 이해하며, 격려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성공적 삶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16)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 꽃가꾸기를 한답니다. 저는 애들을 키우기 위해 중개업을 했지만 꽃가꾸기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한답니다. 앞으로의 여생은 한번 왔다가는 인생이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 때문

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선하게 살다 가고 싶어요. 그게 잘 늙는거라 생각해요.” (참여자 21)

“옛날에는 늙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일단 바빠졌어요. 학교시절보다 최근 공부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배우는게 내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덜어졌어요. 그래서 전 평생교육이 미래의 삶에 희망을 주는 거 같아요” (참여자 13)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교육후 긍정적 느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직업을 갖고 싶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 취업하지 못해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노인교육에 대해 투자대비 효과성도 적고 사람들과 피곤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활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므로 모든 노인들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학습의 결과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이나 혼자있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한 계속적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다.

“저는 해설사, 도시재생활동가 등 뭐라도 해 보려 했으나 끝이 없고 계속 교육만 진행되더라구요. 결정력이 없고 시작한 하되 끝이 없더라구요. 교육과 실재는 다르게 나가는 게 많았어요. 활동할 기회가 없이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고 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 실망스러웠지요.”

(참여자 19)

“뭔가 해 보려고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해 보았지만 되는 것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사람들과 떠들고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이제는 배우러 나가는 것도 좀 쉬고 싶어요” (참여자 12)

5 결론 및 제언

성공적 노화의 핵심은 노년기에 다가오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응하는가 하는 것이며, 노년기에 새로이 주어지는 지위와 역할상실의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다(Rowe & Kahn, 1998). 아무런 준비없이 노년기를 맞게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소외된 채 고독한 삶을 살면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생산력의 문제가 지배적인 가치규범으로 자리잡은 산업사회에서 노인의 이미지는 무기력하고 쓸모 없는 존재로 부각된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로 노인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인식하게 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재생산함으로써 고령사회 자체를 문제의 사회로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다(이소정, 2009).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교육은 건강한 자아상을 도모하고 자기존중감을 잃지 않도록 하며 무엇인가 사회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갖고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실제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 노화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게 되는지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 노년기에 학습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느꼈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일단 갈곳이 생겨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니 외롭지 않아 소외감도 사라졌다고 한다. 학창시절의 공부와는 달리 자신이 원해왔던 것을 학습함으로써 교육적 욕구가 충족되었고 그것을 통해 자기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아성취감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타인을 위해 행동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년기 학습은 교수자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많은 깨우침과 성찰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노인학습은 단순한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적 배움에 대한 정보나눔, 자격증 획득, 봉사활동을 통한 역량향상, 취업,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으로 이어지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로와 칸이 제시한 성공적 삶의 요소인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유지 및 사회참여와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노인학습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학습의 의미를 통해 노인학습을 더욱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수동적인 노인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인으로,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학습을 통한 노인들의 변화들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학습의 긍정적 효과가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활동적 노년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특성과 이들을 위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의 교육기회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노인기의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인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며 이것이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노인들이 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현재는 주로 복지관이나 노인정을 중심으로 보살핌 중심의 노인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교육에 대해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부족한 편이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노인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노인들의 학습참여 동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노인들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욕구들이 존재한다. 현재는 노인의 범주가 너무 넓어 각각의 상황이나 특성에 맞는 노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돌봄과 보살핌 중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집단별, 특성별 교육요구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신노년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에 의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의 U3A활동과 같은 자체적인 학습모임도 권장할 만하다(이해주, 2019). 이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리더육성을 위한 노력을 한다거나 사회참여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노인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련된 것으로 노인들은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을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때 교육의 효과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그들의 생애주기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것을, 교사에 의한 강의식 교육보다는 노인들에 의한 교육을 원한다. 예컨대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또 다른 차원에서 성공적 노화라는 것이 단지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조용히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자기성찰, 생애사 집필 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다양한 활동과 참여가 가능한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좋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멀리 이동하기도 어렵고 지역민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배운 것을 누군가, 어디에선가 활용하기를 원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봉사하면서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사회적 관계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노인들의 소외감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으며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배시민(senior citizen)으로 인식하고 대우하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그들도 아직 사회의 주인으로서 주권자인 시민이고 새로운 사회, 문화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 나간다면, 노인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노인들에게도 필요하다. 노인이라고 대접받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선배시민으로서 후배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한다면 세대간의 갈등도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모든 노인들에게 특정한 삶의 패턴이나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평생교육이 강제적이고 형식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순간, 학교교육의 틀에 다시 갇혀 행복하지 않은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계해

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 이들의 교육받지 않을 권리도 동시에 인정해 주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성공적 노화란 객관적인 준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감, 자아존중감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 논문 투고 일: 2021.07.08.

□ 심사 완료 일: 2021.07.28.

□ 게재 확정 일: 2021.08.30.

참고문헌

- 권현수(2009).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8(5), 995-1008.
- 김동배(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 김재란, 최성현, 허준수(2017). 동아리활동 참여 노인들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72(1), 37-67.
- 김정엽, 이재모(2010). 노인교육에 관한 노인의 욕구분석: 노인의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8(1), 75-102.
- 박성정(2013). 노년기 여성의 학습일여가 참여를 통한 활기찬 삶.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SSUE PAPER, 2013(1), 1-25.
- 박성희(2018).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노인교육의 방법. **노년교육연구**, 4(2), 71-85.
- 서명환(2011).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혜영, 조희선(2005).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인학**, 26(1), 105~123.
- 신복기, 성향숙, 김수영(2006).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연구**, 34, 313-336.
- 유혜엽, 기영화(2008). 노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5(1), 47-66.
- 윤창국(2002). 학습공동체 논의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선화, 석말숙(2015).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8012-8020
- 이소정(2009).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한국인구학**, 32(1), 71-91.
- 이해주(2019). 제3기 인생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의 탐색. **통합인문학연구**, 10(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임은희, 구분진, 인세현(2014). 농촌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5(2). 567-590.
- 전지윤(2003).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정경희, 한경혜, 김정석, 임정기(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성공적 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선일보. ‘212만 베이비붐 세대’ 퇴직 시작됐다(2007년. 1월. 15일자).
- 정병은, 이기홍(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인학**. 29(3). 953-970.
- 한우식, 기영화(2010). 노인 학습동아리 참여노인들의 학습경험 과정. **평생교육-HRD연구**, 6(3), 191-210.
- 한정란(2015). 『노인교육론』. 서울: 학지사.
- 허준수, 조승호(2017).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연구: 유형별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673~691.
- Felce, D. & J. Perry (1995). Quality of Life.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1).

- Fisher, G.J.(1995).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3). 239-250.
- Houle, C. O. (1961). *The inquiring mind: A study of the adult who continues to Learn*.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Oklahoma.
- Hughes, B. (1990). Quality of Life in Peace. Hughes, B. & M. Sheila. (eds). *Researching Social Gerontology*.
- J. Havighurst(1961). *Successful Ageing*. the Gerontologist. 1. 8-13.
- Lane, R. E. 1994.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Person: A New Role for Government?" *Political Theory* 22: 219-252
- Marc E. Agronin(2018). *The end of Old age*. 신동숙역. 노인은 없다. 한스미디어.
- McClusky, H. Y.(1971). *Education: Background paper for 1971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ashington, D.C.: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 Nancy Morrow-Howell, Jim Hinterlong, Philip A. Rozario, and Fengyan Tang.(2003).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8B(3), S137-S145.
- Neugarten, B., Havighurst, R., Tobin, S.(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Paldanius, S. (2007). The rationality of reluctance and indifference toward adult education. Presentation paper in UBC CHET Internal Seminar.
- Rowe. J. W, Kahn. R. L.(1998). *Successful Aging*. NY: Dell publishing.

Schön, D.(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 Basic Book.

Strauss, A. & J. Corbin (1996). 근거이론의 이해. 김수진, 신경림 역.
서울: 한울.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노년교육연구회 www.kseg.or.kr

A dark grey, irregularly shaped graphic resembling a brain or a cloud, containing the word 'Abstract' in white text.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Learning and Successful Aging

Lee, Haejoo

Dept. of Education
KNOU

This article aim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learning and successful aging. For this purpose, 23 respondeandents , over late 60-70 years old, are interveiwed based on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about 1) What was the meaning of their learning? 2) How your interests of learning are moved to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3)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learning and their successful aging?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Most of participants to the elderly learning felt joy of learning, self confidence, and through reflection, they changed their life. 2) learning became a motive to understand others, help others, and social participation including voluntary activities, new job, 3) Through their learning, they become healthy in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cal condition. With these

findings we could find the relation between elderly learning and successful aging positively. And it show us elderly learning have many good meanings and can be a facilitator for successful aging.

| **Key Words** | Successful aging, Participation to Lifelong Education, Social participation.

